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통신 산업 현황

정보통신산업 항목별 평가

미 하버드大와 IBM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통신 산업을 항목별로 평가한 바, Network Speed & Quality, 하드웨어/소프트웨어, Developing the ICT

workforce 등의 면에서 최고 4등급 중 3등급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상태이며, 반면 ICTs in every life, ICTs in the Workplace, B2B E-Commence 등은 1등급으로 가장 뒤쳐진 것으로 지적되었다.

항 목 별	평 가 ^{주)}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ternet Availability	2.8
Internet Affordability	2.8
Network Speed & Quality	2.0
Hardware & Software	3.0
Service & Support	3.0
School's Access to ICT	2.5
Enhancing Education with ICTs	1.5
Developing the ICT workforce	1.5
People and Organization Online	3.0
Locally Relevant Content	2.0
ICTs in every life	3.0
ICTs in the Workplace	1.0
ICT Employment Opportunities	1.0
B2C E-Commence	2.5
B2B E-Commence	2.0
E - Government	1.0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1.3
ICT Trade Policy	2.0
	1.2

주: 최하 1, 최고 4

자료: Havard Univ. & IBM, Readiness for the Network World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

타슈켄트, 누크스 등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라인이 설치되고 있으며, 부하라, 나보이, 신다라, 카라칼팍스탄공화국 등의 지역에 통신 현대화 작업(40%가 디지털)이 진행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전체적으로 200개의 통신채널 기지(32% 이상이 디지털)가 있으며, 통신라인의 길이는 670km, 통신속도는 최대 155/622Mbps이다.

주요 통신기업은 국영 UzPAK 및 UzNet network이며, UzPAK은 phone network "Iska-2"와 데이터 transfer network망을 갖추고 있다. 국제전화는 국영 UzbekTelecom이 독점하고 있다. 무선통신 사업자는 모두 7개로 2개 업체는 DAMPS 방식, 4개 업체는 GSM 방식, 1개 업체만이 CDMA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가능범위는 우즈베키스탄 전체 지역 중 75% 정도이나 무선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은 아직 불가능한 상태이다.

2001년 말 현재 전화 보유대수는 인구 100명당 6.9대 수준이며, 수도인 타슈켄트는 평균 25대로 알려졌다. 핸드폰 사용자수는 동년 말 현재 약 12만 7,000명으로, 인구 100명당 0.5대 수준이다.

인터넷 이용 현황

2001년 6월 말 현재 통신사업자 수는 44개(1998년 17개, 1999년 25개, 2000년 32개)이나, UzPAK이 국외 인터넷망을

독점하고 있으며, 타 업체들은 UzPAK으로부터 인터넷 채널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외에 dial-up, leased line connections, e-mail, DNS 서비스 등도 제공하나, ISDN 및 DSL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음성전송 서비스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이용요금은 시간당 800~1,400 Som(US\$1.2~2.0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최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장비와 광섬유 채널이 확충되어 인터넷망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향후 요금의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dial-up connection을 통한 인터넷망은 30%만이 첫 번째 시도에서 접속되었으며, 61%가 2~3회, 9%가 4회 이상 시도한 경우어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의 품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시장규모는 약 3,000만~4,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2001년 7월 현재 PC 보유대수는 20만 대 수준(인구 100명당 0.8대)으로 매년 2만~2.5만 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이 낮아 PC 구매력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민간 부문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3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슈켄트에서는 인구 1,000명당 2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참

고로 교육기관에 대한 PC 보급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9,665개 초·중·고등학교 중 약 절반 정도에 컴퓨터교실이 운영되어 약 42%가 구소련의 구식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7%가 386/486 컴퓨터를, 1.2%만이 Pentium급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되고 있는 컴퓨터는 DELL, IBM, HP, COMPAQ 등이나, 구입여력 부족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은 Celeron 700~800MHz이며, 15인치 모니터 부문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LG가 각각 45%, 1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컴퓨터 주변기기의 국내 생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러시아산 및 아랍에미리트산 부품을 수입·조립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부문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60여 개의 개발회사가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수요의 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주로 은행, 회계, 급여계산 등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은 1,400명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인건비는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정책 및 향후 시장 전망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문 발전 프로그램(법령 230호)을 제정하고, 정보통신망 현대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UzbekTelecom 민영화 계획을 진행하는 등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보기술에 대한 수요는 높아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나, 낮은 구매력, 인터넷 이용자의 일부 도시 편중 및 접근성 애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부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o UzbekTelecom의 국제전화망 독점 및 UzPAK의 국외 인터넷망 독점
- o 수입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높은 세부담
 - 높은 국내 매매가격으로 구매력을 더욱 저하
 - 수입시 수입관세 등 관련 비용이 수입원가의 50% 차지
- o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인증제도, 사이버범죄 차단 등과 관련한 법적 인프라 구축 미비로 전자상거래 부진

【우즈베키스탄주재원】